

2025학년도 점심생운 Final-Y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점심생운

점심생운 Final-Y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빠른 정답

01 ③	02 ④	03 ①	04 ①	05 ④
06 ⑤	07 ④	08 ④	09 ④	10 ⑤
11 ④	12 ②	13 ②	14 ①	15 ①
16 ③	17 ④	18 ②	19 ⑤	20 ②

<해설>

1. 윤리학의 분류

[정답] ③

[제시문 분석]

(가)는 실천 윤리학, (나)는 기술 윤리학이다. 실천 윤리학은 과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새롭게 생긴 문제점들을 학제적 접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술 윤리학은 다양한 도덕 현상들을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③ 실천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이 윤리적 문제에 실천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가치개입적인 학문이라고 보는 반면,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실천 윤리학이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이 학제적 접근, 즉 다양한 학문에 입각하여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간학문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다.

② 기술 윤리학이 간과할 내용이 아니다. 기술 윤리학은 도덕 현상에 대해 객관적이고 경험과학적인 서술을 해야 한다고 본다.

④ 실천 윤리학이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천

윤리학은 하나의 도덕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간주한다.

⑤ 실천 윤리학이 제기할 수 없는 내용이다. 실천 윤리학은 윤리학을 당위적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인정하지만,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도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천 윤리학이 아닌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2. 서양 사상

[정답] ④

[제시문 파해치기]

제시문 속의 사상가는 칸트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란 누구나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며, 정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ㄴ. 칸트가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칸트에 있어 행위의 옳고 그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는 자신의 실천 이성을 발휘하여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칸트는 의무론의 입장을 취하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원리나 의무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무론적 윤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에 따르면, 도덕 법칙이나 원리를 따르는 행위는 옳고,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도덕 법칙이나 원리를 따랐다면 옳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가 도덕 법칙이나 원리를 위반했다면 그르다고 판단한다.

[비상 윤사 교과서]

ㄷ. 칸트가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다. 칸트는 현상계 인격이 아닌 예지계 인격, 즉 실천 이성의 명령이라 일컫는 '정언 명령'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행위할 것을 요구한다.

[오답 피하기]

ㄱ. 칸트가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인 정언 명령은 모두 자율적인 개별 준칙에서 시작되었으며, 개별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의 검사’와 ‘인격주의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 정언적 명령으로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도덕 법칙으로 정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칸트에 있어 도덕 법칙(정언 명령)은 개인의 자율성이 반영된 것이다.

거짓말이 항상 그런 까닭은 거짓말을 금지하는 것이 정언 명령에서 직접 도출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 법칙이 되도록 할 수는 없다.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 법칙이 되도록 한다면,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거짓말하는 것이 보편 법칙이 되도록 의지하는 것은 자멸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칸트, 『윤리형이상학 정초』]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 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칸트, 『실천이성비판』]

ㄷ. 칸트가 제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칸트는 행위의 동기를 고려하며, 행위의 동기가 순수이성에 걸맞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었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둔다. 행위가 발생시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 입장이다.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것에서 기대되는 결과에 있지 않으며, 그러므로 또한, 그 원리의 동인을 이 기대되는 결과로부터 얻을 필요가 있는, 어떤 행위 원리에도 있지 않다.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03. 과학 기술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①

[제시문 파헤치기]

(가)의 주장은 인간의 자연적 소질을 조작함으로써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깨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유전자 조작 기술)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유전자 조작은 인간의 평등성을 침해할 수 있다’이고, 정답으로는 ㉠의 반론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해설]

① 소전제(㉠)의 반론으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② 대전제의 반론에 해당한다.

③, ⑤ (가)의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④ 해당 논지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04. 해외 원조론

[정답] ①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싱어는 경제적 여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무로써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해외 원조의 형식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결여된 정치적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는 등 정치적 문화의 개선이 가능하도록 고통 받는 사회에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① 싱어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싱어는 풍요로운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지지하는데, 자신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켜 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편적 도덕 원리(공리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싱어, 『실천 윤리학』]

싱어 :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최대의 이익이 산출될 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풍요한 사회의 시민들만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 인류 전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회의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2018학년도 수능]

[오답 피하기]

② 싱어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제시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히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싱어는 해외 원조를 의무의 형식으로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 원조 과정에서 원조의 대상의 이익만이 중시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이익을 동등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이 모두 동등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싱어의 견해이다.

싱어(0) : 원조 주체는 원조 결정 시 자기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2021학년도 9평]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궁극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 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2020학년도 6평]

③ 롤스가 동의할 입장으로 옳지 않다. 롤스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고통받는 사회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원조를 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롤스에 있어 해외 원조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 없다.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주체는 만민(Peoples)인데, 이는 개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를 공유하는 일련의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집합을 일컫는 복수(複數)이지, 개인을 일컫는 단수(單數)가 아니다.

롤스 :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국민을 도와야 한다.

[2017학년도 6평]

우리말에서 만민은 세계의 모든 이를 의미한다. 그러나 롤스가 의미하는 ‘peoples’는, 밀이 말하는 공통의 동정심 아래 한 사회를 이루는 성원으로 세계적 협력에 협조하는 집단인 ‘a people’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롤스, 『만민법』 (역자 해제)]

④ 롤스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에 의하면 ‘자원이 부족한 것’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상대적 빈곤이 아닌 절대적 빈곤, 즉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것이 원조의 목표라고 본다. 그렇기에 고통 받는 사회만이 원조의 대상인데, 고통 받는 사회라고 해서 무조건 자원이 부족한(=상대적으로 빈곤한) 경우가 아니며, 자원이 풍부한(=상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원조의 목적이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목표가 성취된 이후에는, 심지어 현재의 질서정연한 사회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

[롤스, 『만민법』]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의 정치적 평등,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롤스, 『만민법』]

⑤ 롤스와 싱어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에 의하면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며, 싱어에 의하면 원조의 목적은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05. 디지털 맞춤 광고에 대한 토론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디지털 맞춤 광고에 대하여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을은 디지털 맞춤 광고에 대하여 자율적인 규제와 함께 법적 규제 역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④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06. 음악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목자, 을은 순자이다.

[정답 해설]

⑤ 목자와 순자는 모두 인정할 내용이다. 목자는 음악이 악기를 제조하며 재화가 낭비되고, 악곡을 연주하며 필요하지 않은 노동력이 소모되는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본다. 순자는 사회에 긍정적인 음악만을 긍정하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오답 피하기]

① 목자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는다. 음악이 감정적으로 즐거움을 주기는 하지만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고, 백성에게 해롭기 때문에 음악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비악론을 주장한다. 목자의 입장에서 음악은 악기를 제조하며 백성들이 사용할 재물을 낭비하게 만들고, 악곡을 연주하며 노동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백성들의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

목자 :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을 따져서 일을 처리했다. 지금의 대신들이 음악을 즐기느라 나라일을 돌보지 않는다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음악이 즐겁기는 하지만, 백성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기에 음악을 즐기는 것은 잘못이다.

[2023학년도 수능]

목자가 음악을 비난하는 원인은 큰 종이나 울리는 북 또는 거문과 비파, 피리와 생황 같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음악이 백성들의 이로움에 부합된다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 위로 상고하여 볼 때 성왕들의 일과 부합하지 않고 아래로 헤아려 볼 때 백성들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목자, 『목자』 (역자 해설)]

② 목자는 음악의 가치를 백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갑 제시문의 ‘옛 성왕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에서도 볼 수 있듯 목자는 즐거움보다 백성에게 미치는 해악을 생각하며 음악을 평가한다. 즉, 음악에 대한 실용적 관점을 심미적 관점보다 더 중시하는 사상가이기에 해당 선지는 목자의 입장으로 옳지 않다.

목자 : 악(樂)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귀로 듣기에 즐거우나, 백성의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일삼는다면, 백성이 입고 먹을 재물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여러 악기를 만들고 연주했어도 천하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20학년도 수능]

목자 :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利)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害)를 없앴을 법도로 삼는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에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옛 성왕(聖王)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2024학년도 9평]

③ 순자는 유교 사상가로서 음악이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예악론을 주장하며 음악을 제정해 도덕적 수양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순자는 백성들이 스스로 음악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성왕이 예에 따라 제정한 음악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순자 : 성왕(聖王)은 음악을 즐겼다. 더욱이 그것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본성을 교화하였다. 음악을 활용하여 백성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예(禮)에 따라 절제하도록 했던 것이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신(순자)은 간사하고 사악한 음악으로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선왕(先王)이 제정한 음악으로 백성을 이끌어 주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음악을 즐기게 하면서도 사람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마음과 행동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④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한 사상가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지 않는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후천적 노력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순자는 음악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여 사양하는 마음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순자의 입장에서 음악을 통해 백성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본성을 교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樂)이란 밖으로 나아가서는 적을 정벌하고 벌을 줄 수 있으며, 안으로 들어와서는 서로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를 지킬 수 있게 한다. 적을 정벌하고 벌을 주는 것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양하는 예는 그 의의가 한 가지인 것이다. ... 그러므로 악이란 천하를 크게 바로 잡는 것이고 알맞게 조화시키는 규범이며, 사람의 정으로서 는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옛 임금들이 악을 제정한 이유이다.

[순자, 『순자』]

순자는 인성에 내재하는 도덕적 단서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禮)를 도덕규범의 원천이자, 도덕적 생활과 정치적 통치의 근거로 삼았다.

[교학사 윤사 교과서]

순자는 성인(聖人)에 의해 제정된 인위(人僞)로서의 예(禮)를 바탕으로 후천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化性起僞(화성기위)]고 주장하였다.

[미래엔 윤사 교과서]

07. 담론 윤리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 속 사상가는 하버마스다. 하버마스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 소통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규범적 맥락에 따를 것과, 거짓을 하지 말 것 등이 있다.

[정답 해설]

④ 하버마스는 이상적 대화 상황의 규칙으로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하버마스는 담론의 참가자가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는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밝혀내고, 자신의 의견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하버마스는 규범이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범이 되려면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하버마스는 참여자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 만장일치를 통해 규범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화에 참여한 다수가 동의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면 그러한 규범은 도덕규범으로 타당하지 않다. 하버마스는 다수가 아닌 시민 전원의 동의로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담론 윤리에서는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모든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는 실천적 담론 원칙,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은 타당한 규범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편화 원칙을 강조한다.

[비상 생운 교과서]

하버마스 : 모든 당사자들이 어떠한 강제도 없이 자유롭게 평등한 담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행위 규범들만이 정당화가 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9평]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가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나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한다.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②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언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화 참여자들은 각각 담론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천재 생운 교과서]

말할 수 있고 행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바람, 욕구 등도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리들을 행사할 때 내부나 외부의 강요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해명』]

③ 담론 과정에서 만장일치를 통해 합의된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하버마스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절대적인 참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버마스는 합의에 이른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토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적 담화 상황의 조건

첫째, 모든 언어와 행위 능력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부칠 수 있으며,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비상 생운 교과서]

⑤ 하버마스는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담론 과정에서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는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하버마스 : 모든 사유의 출발점은 홀로 사유하는 '나'가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어적·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타자를 단지 도구화하지 않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의사소통 행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의사소통 행위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서로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데에서 성립합니다.

[2021학년도 9평]

하버마스 :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 대화를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경험에 호소한다. 이를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고, 이성적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2021학년도 수능]

08. 국제 평화론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칸트, 을은 현실주의 모겐소이다. 칸트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국제적 평화 연맹을 통해 개별 국가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시키고, 영원한 평화로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학자로 국내외 정치에서 권력에 대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주장

한다.

[정답 해설]

ㄱ. 칸트가 동의할 입장이다. 칸트는 보편적 우호 조건을 통해 이방인에게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환대’는 인류에 대한 애정이나 공감, 즉 인간애(인류애)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권리나 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제3 확정 조항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 있어야만 한다.” : 앞 조항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관건이 되는 것은 인간애가 아니라 권리/법이다. 여기서 우호(우대)란 외국인이 어떤 타국의 영토에 도착했다고 해서 이 국가에 의해 적대적으로 취급되지 않을 외국인의 권리를 의미한다.

[칸트, 『영원한 평화』]

ㄴ. 칸트가 동의할 입장이다. 칸트는 평화 연맹이 모든 국가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칸트에 있어 국가는 국제 관계에 있어 개별 주체에 해당하는데, 때문에 정언 명령에 의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평화를 위한 것일지라도 평화 연맹에의 강제적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를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칸트의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칸트의 국제 이론에서 평화 연맹은 독자적인 강제력이나 중앙 권위를 지니지 않는 유연한 조직 체계라는 것을 기억하자.

ㄷ. 칸트와 모겐소 모두 동의할 입장이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으로 평화 연맹을 기초로 하는 국제법을 제시하면서, 국제법이 개별 국가의 자발적인 국제법 준수를 통해 ‘진정한 평화 상태(전쟁 발발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1.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3.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칸트, 『영원한 평화』]

국제법은 공법으로서 그 자체 개념 속에 각 국가에 그의 권리를 부여하는 일반 의지의 공개적 천명을 포함하며, 이러한 법적 상태는 어떤 계약에서부터 귀결되어야 한다. 그 계약은 반드시 강제법에 근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전에 언급된 국제 연맹에 서처럼 자유롭고 지속적인 연합의 계약일 수 있다.

[칸트, 『영원한 평화』]

모겐소 역시 국제법이 평화로운 상태로 이행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며, 통용되는 국제법의 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겐소가 국제법의 효과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모겐소는 국제법이 전쟁의 주요 원인인 권력의 불균형을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개별 국가의 자발적인 국제법 준수는 전쟁을 유예시키고, 세력 균형을 위한 기초적인 장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칸트가 주장하는 국제법과 모겐소가 주장하는 국제법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오답 피하기]

ㄷ. 모겐소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모겐소는 국내적 정치와 국제적 정치 모두에서 권력 투쟁이 본질로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국가 간의 관계는 권력이다. 이는 본능이다. 생존, 번식, 지배 욕망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다. 전쟁은 격려 하면서 살인은 막는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며 다만 국내, 국제적 조건의 차이일 뿐이다. 국내 문제도 수도 없이 권력 투쟁이 일어난다. 국제정치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09. 동양 사상 접근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예(禮)를 백성의 행동의 근간을 세우는 예절, 예의라고 본다. 공자는 당시의 예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보며, 예(禮)를 실천하는 방법으로써 극기복례(克己復禮)를 강조한다. 공자에 따르면 극기복례란 인(仁)을 바탕으로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다. 순자는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하기 위해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教化)와 예의에 의한 교도(教導)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순자에 따르면 예(禮)란 고대의 성왕(聖王)이 만든 인위적·외면적 사회적 규범이다. 이러한 예(禮)는 모든 도덕적 덕목을 포괄하며, 생활과 통치의 기준이 되는 사회의 최고 규범이다.

[정답 해설]

④ 순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순자는 예(禮)의 본질로 ‘사람을 기르는 것’, ‘분별’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예의 두 번째 본질로서의 ‘분별’은 귀천의 구분, 장유의 차별, 빈부의 조정 등을 규정하며, 사회의 신분 제도, 인간관계의 질서, 신분 제도의 장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순자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 질서는 모두 인간의 성정을 절제하고 어느 정도의 욕망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예(禮)란 귀천의 등급을 가리는 기준이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알맞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등급에 맞는 덕(德)은 반드시 그들의 지위에 알맞아야 하며, 그들의 지위는 그들이 받는 처우에 어울려야 한다.

[순자, 『순자』]

[오답 피하기]

① 공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공자는 예(禮)를 통해 인(仁)을 실현, 완성할 수 있다고 보며, 예(禮)는 인(仁)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표현한다.

공자는 인(仁)은 예(禮)의 형식으로 표현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극복하고 예(禮)를 실천해야 한다고[克己復禮(극기복례)] 주장한다.

[천재 윤사 교과서]

임방이 예(禮)의 근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크도다, 질문이여! 예(禮)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해야 하고, 상사(喪事)는 형식보다는 차라리 슬퍼하여야 한다.”

[공자, 『논어』]

② 공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공자는 당시의 예(禮)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예(禮)와 인(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인과 예(禮)가 잘 어우러진 상태로서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상태를 중용(中庸)이라 한다. 반면 공자는 예(禮)가 인(仁)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허례허식에 불과하다고 본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손하면서도 예(禮)가 없으면 수고롭고, 신중하면서도 예(禮)가 없으면 담력이 작아 두려워하며, 용감하면서도 예(禮)가 없으면 문란해지고, 정직하면서도 예(禮)가 없으면 박절하게 된다. 군자가 친족들에게 돈독한 감정을 가지면 백성들 사이에 인(仁)이 유행할 것이다. 옛 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각박해지지 않을 것이다.”

[공자, 『논어』]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자(子思子)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하며 균형 잡힌 중용적 삶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중(中)은 치우치지도 않고(不偏), 기울어지지도 않고(不倚) 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無過不及). 용(庸)은 항상이라는 뜻이다.’ 정리하면, 중용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박재희(KPS), 『퇴근길 인문학』]

③ 순자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순자는 예(禮)에는 절(節)의 기능, 즉 무절제한 욕구 추구를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이 예(禮)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실

천하여 악한 본성을 교화해 성위지합(誠僞之合)의 경지에 이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한 도덕적 존재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禮)란 귀천의 등급을 가리는 기준이며, 신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알맞은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등급에 맞는 덕(德)은 반드시 그들의 지위에 알맞아야 하며, 그들의 지위는 그들이 받는 처우에 어울려야 한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예와 음악으로 생활을 조절하고, 백성들은 반드시 법과 제도, 형벌로써 절제하게 해야 한다.

[순자, 『순자』]

⑤ 공자와 순자 공통 입장으로 적절하다. 공자는 예(禮)를 인(仁)을 실현하기 위한 외적인 사회 규범으로 보고, 순자는 예를 고대 성왕이 제정한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라고 보았다.

“예禮”란 절도에 들어맞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 귀족들의 행위를 규범화한 것이다. 타인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규범과 이에 따른 긴장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의義’와 통하며, 주나라의 예를 말한다. 이 ‘예’는 ‘인’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으로, 공자에게는 이상적인 지배 질서이자 한 나라의 근본 원리였다.

[공자, 『논어』 (역자 주)]

인간의 본성은 이미 악한 것이기에 본성에 따라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작위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위적인 노력의 준거가 바로 성인들이 만든 사회적 규범, 즉 예였던 것이다.

[순자, 『순자』 (역자 해제)]

10. 환경 윤리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싱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은 사람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뿐 아니라 동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테일러는 의식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유

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고,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한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개체들의 집합 혹은 관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닌다고 보는 전일론적 윤리의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은 탈인간 중심주의적이며 동시에 도덕적 고려 대상을 무생물, 관계, 생태계 전체 등으로 확대한다.

[정답 해설]

ㄴ. (싱어 X, 테일러 O, 레오폴드 X)

테일러에 따르면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고유의 선을 지니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다. 따라서 테일러의 입장에서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며, 이 존재들은 마땅히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

테일러 : 동식물은 고유의 선을 갖는 실체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닌 합리적 인격체들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취하고, 동식물을 내재적 존엄성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다.

[2016학년도 수능]

싱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의 기준을 개체의 고유의 선으로 보지 않았으며, 레오폴드 역시 모든 생명체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ㄷ. (싱어 X, 테일러 X, 레오폴드 O)

동물 중심주의 학자인 싱어와 생명 중심주의 학자인 테일러 모두 개체론적 관점을 지향한다. 이에 반해, 생태 중심주의의 레오폴드는 전일론자로서 생태계의 아름다움, 안정성 등이 개별 개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대지 윤리에서는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시한다.

[비상 생운 교과서]

ㄹ. (싱어 O, 테일러 O, 레오폴드 O)

싱어는 유인원은 꽤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중 하나이므로 이익 관심을 고려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본다. 테일러는 모든 유기체는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추구하는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유인원 개체 또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개별 유기체라고

본다. 레오폴드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포함해 대지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과 대지에 대한 존중을 주장한다. 따라서 유인원 또한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ㄱ. (싱어 X, 테일러 O, 레오폴드 X)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가 이익 관심을 고려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보지만, 공리주의자로서 '천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싱어는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가 생명권을 가진다고 본다. 레오폴드는 개별 실체들의 '존속할 권리'를 주장하지만, 전일론자로서 개별 개체의 '존속할 권리'와 '생태계의 안정성 등 보전'이 상충할 경우 생태계가 우위에 있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한 도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싱어, 『동물의 권리』]

11. 책임 윤리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 속 사상가는 요나스이다. 요나스는 무엇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희망 대신 무엇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공포로부터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이 드러난다고 본다. 요나스는 이를 '공포의 발견술'이라 일컫는다.

[정답 해설]

ㄴ. 요나스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제시문 독해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선지이다. 요나스가 주장하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의무를 선에서 찾기보다 불행한 예언을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앞으로 처하게 될 운명을 진단하고 그 예방책을 찾고자 한다고 본다.

ㄷ. 요나스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다. 요나스는 책임에 있어 유일한 주체인 인간이 지니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그 자체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요나스(0) :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2017학년도 6평]

[오답 피하기]

ㄱ. 요나스가 동의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요나스는 현대 과학 기술이 산출한 행위들의 규모가 너무나 새롭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 윤리로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책임의 대상에 자연과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새로운 책임 윤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책임은 자연과 미래 세대의 인간까지 포함되고, 호혜적(=쌍방향적)이 아닌 비호혜적(=일방향적)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본다.

12. 국가론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라고 규정한다. 홉스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지니는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할 수 없기에, 이성을 통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고 본다. 로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독립된 인격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로크는 만인의 동의, 즉 사회 계약에 의해서 비로소 복종의 의무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ㄱ.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홉스는 인간이 악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자연적인 본성을 지닌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홉스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며,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홉스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성을 발휘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여기서의 상호 계약이 바로 사회 계약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해도 좋다.’ 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ㄷ. 로크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로크는 자유 상태와 방종(자의적인) 상태를 구분한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지, 방종의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간에게 자신의 것을 사용·처분하는 데에 통제를 받지 않지만, 그것을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보지 않는다. 로크는 이성을 곧 자연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성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라고 보며, 타인의 것을 해칠 수 없다고 명령한다고 주장한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바로 그 법인 이성은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전체 인류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독립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가르친다.

[로크, 『통치론』]

[오답 피하기]

ㄴ. 홉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홉스의 이론에서 자연법은 만인이 무제한적 자연권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 무제한적 자연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다. 전쟁의 원인 중 하나인 ‘개인의 무제한적 자연권’을 국가 구성원 모두가 포기하여, ‘제한적인 자연권’을 행사함으로써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홉스의 견해이다.

평화추구의 의무를 규정한 기본 자연법(제 1의 자연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2의 자연법이 도출된다. ‘인간은 평화와, 그리고 자기 방어가 보장되는 한, 또한 다른 사람들도 다같이 그렇게 할 경우, 만물에 대한 이러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허락한 만큼의 자유를 타인에 대해 갖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홉스, 『리바이어던』]

이는 위 ㄱ 해설에서 알 수 있듯 평화를 추구하라는 자연법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ㄴ. 로크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다. 로크는 입법부가 공공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자신이 만든 법률에 스스로 복종하는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입법부의 구성원 역시 엄연히 시민이며 법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로크의 견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당연하게도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잘 정비된 국가에서는 입법권이 적법하게 모인 다양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 법을 제정할 권력을 갖는다. 법을 제정하고 나면 다시 흩어져 그들이 제정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신민이 된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여되는 주의해야 할 새롭고도 밀접한 구속이므로 그들은 공공선을 위해 법을 만들게 된다.

[로크, 『통치론』]

홉스는 명시적으로 입법권을 지닌 리바이어던(주권자)가 ‘평생’ 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리바이어던은 국가가 소멸되기 전까지 주권자이자 입법자인 만큼, 법을 제정할 권력이 있으므로 인민의 안전을 위한 법적 규범을 지속적으로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코먼웰스에서 유일한 입법자는 주권자이다. 이것은 주권자가 군주정에서처럼 한 사람이든, 민주정이나 귀족정에서처럼 다수의 합의체이든 상관없다. 입법자란 곧 법을 만드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코먼웰스만이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여러 규칙을 정하고 그 준수를 명령한다. 따라서 코먼웰스는 입법자이다.

[홉스, 『리바이어던』]

13. 의식주 윤리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 속 사상은 불교이다.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을 수행의 연장이라고 보고,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절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답 해설]

ㄱ.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불교는 ‘음식의 적

당한 양을 아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곧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절제의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ㄹ. 대승 경전의 『입능가경』에 따르면 인간이 고기를 먹는 것은 자신과 자기 부모, 친족을 먹는 행위와 같다.

대혜여, 일체의 모든 고기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인연(因緣)이 있다. 보살은 그 가운데서 마땅히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 마땅히 먹어서는 안 된다. 대혜여, 일체중생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 생사 중에 윤회(輪廻)해 쉼이 없어서 일찍이 부모, 형제, 남녀, 식구 내지 친구와 친애하는 사람, 모시는 사람, 부리는 사람이 되지 않음이 없었고, 생을 바꾸어 새나 짐승 등의 몸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그것을 취해 먹겠는가?

『입능가경』

(물론 일부 종파의 경우 육식을 일부 허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교 사상의 총제적 관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육식을 금한다. 위에서 언급한 육식을 일부 허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리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한 허용에 그친다.)

[오답 피하기]

ㄴ. 불교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수행의 연장이라고 본다.

불교(0) :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수양을 통해 조절되어야 한다.

[2024학년도 6평]

ㄷ. 제시문에 따르면 밥을 먹는 것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 입장에서 음식은 명예를 드높이는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공양(供養)을 받는다. 밥 먹는 것은 즐기거나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몸을 지탱하고 존속하는 것, 청정(淸靜)한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대장경』

14.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비교

[정답] ①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플라톤, 을은 에피쿠로스이다.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순수한 영혼이 영혼의 순수한 사유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보며 죽음이 후에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이 후에 모든 감각이 소멸된다고 본다.

[정답 해설]

① 플라톤이 동의할 입장이다. 플라톤은 이분법적 세계관을 주장하며 세계를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구분하였다. 설명을 위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데아계는 현상계의 존재 근거가 되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세계이고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모방에 불과하다. 플라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이데아계를 참된 실재, 사물 그 자체, 사물의 원형 등으로 표현한다. 인간은 살아생전에 이성을 통해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와 다르게 감각을 통해서만 오로지 불완전한 현실의 세계만 경험할 수 있다. 플라톤은 오히려 감각이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 요소임을 주장한다. 아래 자료가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플라톤 : 우리의 감각이 파악하는 것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반면 동굴 밖에서 만나는 태양은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알게 하며,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인 좋음(善)의 이데아를 상징한다. 철학자는 동굴 밖에 나가 태양이 비추는 세상을 본 사람과 같다.

[천재 윤사 교과서]

플라톤 : 이데아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와 떨어져 있다. 감각적인 현상의 세계는 이데아를 모방하여 생겨나고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며 변화하는 반면,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불변하다. 이데아는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으며, 감각은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 방해가 된다.

[천재 윤사 교과서]

그렇다면 지상의 인간들이 선의 이데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서 플라톤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가설을 요청한다. 영혼이 불멸하다는 가설과 이데아 세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데아 세계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데아 세계에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영혼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영혼은 현상 세계에서 육체와 결합되어 있다가 죽음을 통해 육체와 분리되면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리고 이데아 세계에 있던 영혼은 다시 현상 세계로 와서 육체와 결합한다. 이때 현상 세계와 이데아 세계 사이에는 망각의 강이 놓여 있다. 바로 이 점에서 플라톤은 상기설을 통해 이데아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설명하고자 한다.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인간의 영혼이 망각의 강을 건너 이 세상으로 오면서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깨닫도록 하는 것은 불멸하는 영혼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다.

[씨마스 윤사 교사용 지도서]

우리가 언제고 뭔가를 순수하게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몸에서 해방되어야만 하며 사물들을 그 자체로 혼 자체에 의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열망하는 바의 것이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인 바의 것인 지혜는, 이 논의가 보여주듯, 우리가 죽게 되었을 그때에야, 우리의 것이 되지, 살아 있는 동안은 아닌 것 같아. 만일에 몸과 함께는 아무것도 순수하게 알 수가 없다면, 다음 둘 중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지. 전혀 앎을 얻을 수 없거나 아니면 죽어서나 가능하거나. 그때에야 혼은 몸과 떨어져 그 자체로만 있게 되지.

[플라톤, 『파이돈』]

요약하자면,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사물 그 자체, 즉 이데아계를 감각할 수는 없으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는 있다.

[오답 피하기]

② 플라톤이 죽음을 통해 영혼이 참된 진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은 옳으나 육체 또한 그렇다고 보지는 않았다. 플라톤의 입장에서 죽음

은 육체에 갇혀 있던 영혼이 이데아계로 되돌아가 사물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진리 파악을 방해하고 영혼 본연의 능력 발휘를 막는 방해물 같은 존재이다.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서야 영혼이 참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죽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플라톤 : 죽음은 진리 추구를 방해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평생에 걸쳐 최대한 죽음과 가장 가까운 상태로 영혼을 정화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다.

[2021학년도 6평]

플라톤 :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자유를 얻는다. 죽음이 다가올 때 죽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분명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며, 육신을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부나 명예를 사랑하는 자임에 틀림이 없다.

[2023학년도 수능]

철인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사후 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걸세. 그렇다면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서 어떻게 죽음을 싫어하겠는가?

[플라톤, 『파이돈』]

③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 에피쿠로스에서 죽음은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 경험할 수 없고, 죽음이 음과 동시에 우리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기 전이든 죽고 난 후든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문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의 감각이 소멸된다고 주장하기에 에피쿠로스의 입장으로 틀린 선지이다.

에피쿠로스 :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떠한 악으로도 생각되지 않는다.

[2023학년도 수능]

에피쿠로스 :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감각을 상실하면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면 모든 감각 능력을 상실합니다.

[2023학년도 6평]

④ 에피쿠로스는 내세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3번 선지의 해설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내세의 쾌락과 평안을 제공한다는 문장도 성립할 수 없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쾌락과 평안을 제공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멸을 갈구하는 욕망이 인간에게 고통을 준다고 보며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에피쿠로스(0) :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3학년도 6평]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사성(可死性)도 즐겁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의 삶을 보태어 주기 때문이 아니라, 불멸에 대한 갈망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쾌락』]

⑤ 플라톤은 동의할 입장이지만 에피쿠로스가 반대할 입장이지 오답이다. 제시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플라톤은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감으로써 순수한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순수한 인식은 영혼이 욕망을 지닌 육체에서 해방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순전히 정신만을 가지고 각각의 탐구 대상으로 나아가고 사유할 때 이성의 활동에 시각이나 그 밖의 감각을 끌어 들이지 않고, 정신 자체의 밝은 빛만으로 참된 존재를 탐구하는 사람만이 그 탐구 대상을 가장 순수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즉 눈이나 귀나 아니 온 신체는 영혼과 관계하여 영혼이 진리와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가능한 이런 것과 관계를 끊고 이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 이야말로 참 존재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플라톤, 『파이돈』]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주장하며 죽음 이후에는 좋음도 나쁨도 감각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지혜를 얻을 수도, 그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도 없다.

“죽음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믿음에 익숙해져라. 왜냐하면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 『쾌락』]

15. 분배 정의

[정답] ①

[제시문 파해치기]

갑은 롤스,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임의적인 개인의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원초적 입장에서 순수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 합의한 정의 원칙에 따라 사회가 운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직은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포괄적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노직에게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정당화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국가인 ‘최소 국가’이다.

[정답 해설]

ㄱ. 롤스는 긍정, 노직은 부정할 입장이다. 롤스는 무지의 장막을 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낸다고 가정한다. 이때의 ‘무지의 장막’이란 정의 원칙을 도출할 때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 재산, 소질과 능력, 지능, 체력, 가치관과 심리적 성향에 관해서 모르는 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롤스의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함의하는 과정 속에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자연적·사회적 우연성, 즉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의 원칙은 특수한 역사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배경적 정의의 형식을 규정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회제도들의 실행이며, 자연 상태의 기준 -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복지(그것이 어떻게 규정되든) 수준 - 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역사적인 무리수이자 알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반면 노직은 정의 원칙이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적 조건을 고려한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노직은 어떠한 소유물을 개인이 갖는다면 그 소유물의 취득·이전의 과정이 정당해야 그 개인에게 응분의 자격이 부여된다고 본다. 이때 노직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칙은 소유를 발생시킨 최초의 취득이 정당한지에 대한 원리이고, 이전의 원리는 정당하게 획득한 소유물을 자유롭게 이전시킬 수 있고 그러한 소유물을 정당하게 이전받은 사람만이 그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리이다. 이렇듯 노직은 소유하는 과정에서의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를 분석하는 ‘역사적 원리’를 중요시한다. 아래 자료들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해보자.

노직이 말하는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한 소유 권리의 원리들은 정의에 관한 역사적 원리이다. 즉 취득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전에 있어서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 즉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유물을 취득한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원리는 소유 상태의 결과에 의해 그 소유의 정당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노직의 소유물에서의 정의의 원리 즉 소유 권리론은 역사적 원리이다.

[장동익,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해제』]

ㄷ.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우선 롤스는 정의의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개인들에

게 기본적 자유를 균등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위의 내용만 가지고 선지를 처리했다면 오답으로 선택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선지는 개인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균등히 보장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상충되는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다. 롤스에게 기본적 자유는 자의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롤스는 개인들의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상충할 경우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롤스에 따르면 기본적 자유들은 개인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는 게 옳지만,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기본적 자유는 서로 상충될 때 ‘그 내부에서’ 제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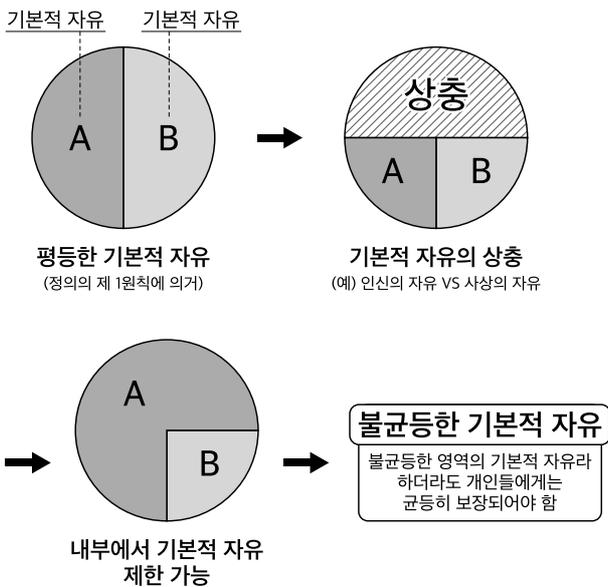
이 [기본적]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자유들은 다른 자유들과 충돌할 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들 중 어느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하지만 이 자유들이 조정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체계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롤스, 『정의론』]

우리가 말했듯이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혹은 정치적 자유와 법치의 보장 같은 기본적 자유들 가운데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그것들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조정된 체제에서 각각의 기본적 자유가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요구되지도 않는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이를 테면, 타인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종교적 자유’와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신의 자유’가 서로 상충할 경우, 종교적 자유는 인신의 자유에 의해 그 내부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의 입장에서 상충되는 기본적 자유들이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ㄴ. 롤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타인의 재능을 감소·제한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해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롤스는 탁월한 재능의 소유자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을 정의 원칙에 의해 최소 수혜자의 기대치를 향상할 수 있게끔 분배함으로써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 롤스는 오히려 개인의 재능을 더 발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더 큰 사회적 자산을 창출하게끔 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본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타인들의 재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다 불운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차등의 원칙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은 보다 훌륭한 능력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용될 사회적 자산으로 보게 된다.

[롤스, 『정의론』]

차등의 원칙이 만족될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그에게 제시된 이익에 의해서 이득을 볼 것이며, 처지가 못한 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는 기여에 의해서 이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자들은 최소 수혜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롤스, 『정의론』]

더 많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은 더 적은 재능을 타고난 이들의 선에 공헌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천부적 재능을 훈련하고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그 분포에서의 운 좋은 위치를 통해 이미 이익을 얻고 있지만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도록 장려된다. 호혜성은 한편으로는 이타주의적인 공평함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이익 사이에 위치한 도덕 관념이다.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 재서술』]

ㄹ. 노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노직에게 교정의 원리에 의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취득과 이전의 원리, 즉 정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 원칙에 위배된 소유물이다.

노직은 자유 지상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를 탐구하였으며, 재화를 소유하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만일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노동하여 최초로 재화를 취득하였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재화를 양도받았다면 그의 소유는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화를 획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천재 생윤 교과서]

(생활과 윤리는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에 따라 정답이 갈리는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흘려 읽지 말고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파악하며 선지를 처리해야 하겠다.)

16. 직업과 청렴 윤리

[정답] ③

[제시문 파헤치기]

정약용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청렴’을 강조하였다. 청렴하기 위해서 검소해야 하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아껴 쓰고 절약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해설]

③ 정약용은 공직자가 염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정약용은 목민관의 본분으로 청렴을 중요시하였는데 이 청렴이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정약용은 목민관이 필연적으로 덕을 지녀야 한다고 보았다.

청렴은 목민관의 본분이요,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수령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정약용, 『목민심서』]

정약용(X) : 공직자의 청렴은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 덕목은 아니다.

[2021학년도 6평]

② 정약용은 공직자 역시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X) : 올바른 통치를 위해 다스리는 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2021학년도 6평]

④ 제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약용은 백성을 위해서 절약의 자세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였다.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라네. 안정복(조선 정조 때 실학자)은 이렇게 말했네. “수령이 부인과 첩을 데리고 부임지로 가지 않고, 자식들을 부임지에 오지 못하게 하고, 권문세가(權門勢家)를 섬기지 않고, 금 세공장이와 목수를 불러들이지 않고, 금은보화를 탐내지 않으면 가난한 고을이라도 재정 부족을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약용, 『목민심서』]

경비를 함부로 쓰면 재정이 모자라게 되고, 재정이 모자라면 백성의 재물을 빼앗게 되지 않겠나? 처음 부임하여 어리석게 재정을 마음껏 쓰다가 점차 줄이는 자가 많네. 그렇게 되면 아전과 백성들이 그 일 정하지 못함을 비웃을 거야. 그러니 수령이 어떻게 재정을 절약하지 않을 수 있겠나?

[정약용, 『목민심서』]

⑤ 청렴을 중시하는 것은 정약용의 기본 입장이다. 정약용은 청렴해야만 백성들에게 자애로울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 : 청렴은 목민관의 근본적인 의무이며 모든 덕의 근원이다. 목민관이 욕심을 부려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다 보면 민생고가 심해진다. 재물에 청렴하면서도 치밀하지 못하거나, 재물을 나누어 주면서도 실효가 없는 것도 칭송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아울러 목민관이 집안을 바로잡아야 청탁과 뇌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2022학년도 수능]

17. 교정적 정의

[정답] ④

[제시문 파헤치기]

갑은 루소, 을은 베카리아다. 루소는 형벌을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국가의 강제라고 본다. 나아가 루소는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과도한 형벌은 악한 영향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④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베카리아는 국가에게 형벌로 하여금 시민에 신체적인 손상을 일으키거나, 시민이 죽음에 달하도록 하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근거로는 베카리아가 사회 계약 당시 자연 상태의 개인이 국가에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권리 역시 양도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벌은 사회에서 한 명의 사적 구성원에 가하는 한 사람 또는 다수의 폭력 행위가 아니므로, 즉각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법에 따라 범죄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베카리아 :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2024학년도 9평]

[오답 피하기]

① 루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루소는 사회 상태의 토대를 구성하는 규칙들을 '사회법'이라 일컫는다. 루소는 살인을 포함하여 사회법을 공격하는 행위는 중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모두 조국의 반역자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살인 이외에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사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루소의 견해이다.

사회법droit social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은 중죄를 저지름으로써 조국의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조국의 법을 어김으로써 그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심지어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때 국가의 보존과 그의 보존은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만 한다.

[루소, 『사회 계약론』]

게다가,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당은 누구나 자신의 그 중죄로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된다. 그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조국의 일원이기를 멈추는 것이 되며, 조국과 싸우기까지 하는 것이 된다. 그때 국가의 보존은 그 악당의 보존과 양립할 수 없기에,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죄인은 시민으로서보다는 적으로 간주되어 처형되는 것이다. 소송과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깬다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며 선언인 것이다.

[루소, 『사회 계약론』]

② 루소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해당 선지는 응보론적 관점에서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루소 역시 응보론적 관점에서 사형의 정당성을 논한다.

타인을 희생시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는 마찬가지로 필요할 경우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

[루소, 『사회 계약론』]

루소나 칸트 등 인간 존엄성을 강조한 학자들은 사형 제도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인의 천부적 생명권을 침해한 살인범의 생명권은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응보이론으로서, 사형 제도 존치론의 대표적인 근거 이론이다.

(이전교육과정) [교학사 생운 교과서]

③ 베카리아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유용성 측면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사형 반대론자이지만, 범죄자에게 사형이 부과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 베카리아의 형법학 이론에서 예외적으로 사형을 허용한다. (이는 실제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으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두자.)

한 시민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경우뿐이다 첫째,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부형태에 위험한 혁명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그의 죽음은 불가피할 것이다. (...)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의 방법일 경우이다. 바로 그 쟁점은 사형이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이유일 것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⑤ 루소와 베카리아의 공통된 입장으로 적절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루소와 베카리아를 포함하여 생활과 윤리에서 다루는 형벌에 관련한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루소와 베카리아 뿐 아니라 칸트와 벤담도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경우 공적인 힘을 이용해야 하며, 사적 보복의 수단이 형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벌은 결코 주권자가 할 일이 아니다. 처벌은 주권자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주권자에 의해 위임되는 권리다.

[루소, 『사회 계약론』]

성문의 법이 없이는 사회는 확정된 정부형태를 갖출 수 없다. 권력이 일부 성원이 아니라 사회전체로부터 나오고, 그 법은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고 오직 일반의사에 의해서만 개정되는 그러한 정부형태 말이다.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칸트, 베카리아(0) : 형벌은 사적인 보복이 아니라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만 한다.

[2019학년도 수능]

18. 성과 사랑의 윤리

[정답] ②

[제시문 파헤치기]

같은 성적 관계는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보수주의이며, 을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라면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중도주의이다.

[정답 해설]

② 중도주의가 보수주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사회적 승인이란 결혼을 의미하는데, 중도주의는 사랑 중심의 성 윤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보수주의와 중도주의, 자유주의 모두 이야기하지 않을 내용이다. 보수주의는 부부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로 할 때, 중도주의는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자유주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발적 동의가 전제될 때 정당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③ 중도주의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중도주의는 사랑이 있는 성은 도덕적으로 옳고, 사랑이 없는 성은 도덕적으로 그르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관계라

면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있다.

④ 보수주의가 중도주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의 목적으로 출산을 강조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⑤ 보수주의가 중도주의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보수주의는 혼인의 관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적 관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성적 관계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사랑과 신뢰를 전제로 해야 도덕적인 것이다.

19. 종교 윤리

[정답] ⑤

[제시문 파헤치기]

제시문 속 사상가는 엘리아데이다.

[정답 해설]

⑤ 엘리아데는 인간이 세속적 세계와 성스러움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

엘리아데는 인간이란 질적으로 다른 이중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재’를 그는 ‘두 가지 존재의 질서, 곧 성령과 속속’이라 부른다. 엘리아데는 우리 삶 속에서 마주치는 일상적인 것들을 ‘속’이라 하고 개인 또는 집단의 독특한 경험에 의해 의미를 갖게 되는 것들을 ‘성’이라 규정했다. 가령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나무, 돌, 자동차, 건물은 모두 ‘속’의 영역이지만 이 물질이 한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을 가져다주는 순간 ‘성’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 성과 속은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성과 속은 인간의 두 가지 경험의 양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설명해 주는 새로운 ‘범주’이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인간을 설명하는 범주에는 시간과 공간, 신과 인간 등의 전통적인 형식이 있다. 그러나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야말로 인간과 문화를 포괄할 수 있는 근원적인 범주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성과 속이라는 두 실재를 전제하면서 그것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은 속의 반대이다. 이분법적 실재의 범주에서 본다면, 성은 ‘그곳’이고, 속은 ‘이곳’이며, 성은 ‘그때’이고, 속은 ‘지금’이며, 성은 ‘전혀 다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과 속이 함께

있다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경험이다. 선과 악, 천당과 지옥, 죄와 벌 등 이분법적 사고에 길들여진 서양인들에게 선과 속 역시 좀처럼 화해할 낯새를 보이지 않는 대립이었다. 신성 모독이란 그들에게는 지구상의 단어가 아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성과 속은 양극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안진태, 『엘리아데, 신화, 종교』]

[오답 피하기]

① 엘리아데는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단절되어 있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한다. 또한 일상적인 삶이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엘리아데가 성과 속이 구분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아니다. 인간과 만물은 ‘성’과 ‘속’이라는 두 세계에 동시에 몸을 담고 있으며 이 두 세계는 모두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존중 받아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성스러움과 인간의 삶은 단절되어 있지 않다.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에서는 언제든지 성스러움의 드러남, 즉 성현(聖顯)이 나타날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엘리아데는 인간을 절대적 실체(신)의 창조물이며, 절대적 실체를 갈망하는 존재, 즉 종교적 지향성을 지닌 존재로 보았다. 이에 엘리아데는 세속과 성스러움의 세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종교 생활을 강조하였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에서 성과 속은 대립적이고 상호 모순적인 개념이지만, 일상에서 성스러움은 그 자체로 나타나지 않고 속된 세계와 더불어 나타나는 점에 주목한다.

[금성 생운 교과서]

②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이 내면에 종교성을 지니며 종교적 인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본다. 성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현대인을 비판하며 성스러움을 회복하고 종교적 인간으로서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엘리아데의 입장에서 성스러운 돌이나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 그 자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성현

이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은 자연의 사물들에게서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자연의 대상들은 현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적 인간들은 돌이나 나무 같은 대상들을 성스러움이 드러난 대상으로 보며 종교적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돌, 나무가 성스럽다고 숭배받는다면, ‘돌, 나무’로서 그 자체로 숭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聖)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숭배받는 것이다.

[엘리아데, 『종교형태론』]

④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 선지이다. 하지만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본다.

엘리아데 :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를 현현(顯現)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성현(聖顯)이라 한다. 종교적 인간에게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며,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이고, 세계는 신의 손으로 완성된 것이어서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성스러운 돌, 성스러운 나무는 돌이나 나무로서 숭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현이기 때문에 숭배된다.

[2022학년도 수능]

20. 시민 불복종

[정답] ②

[제시문 파해치기]

갑은 싱어, 을은 소로, 병은 롤스이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며, 정의에 대한 존경심에 따라 즉각적인 불복종을 행함으로써 대중에게 불의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 롤스는 일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으로 보며,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의 원칙에 걸맞는 법과 정책 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해설]

② 소로가 싱어와 롤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

하다. 소로는 개인의 양심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이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과 정책 등에 대해 불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양심을 가진 단체이다.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 오히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매일매일 불의의 하수인이 되고 있다.

[소로, 『시민 불복종』]

롤스와 싱어 모두 개인의 양심이 시민 불복종의 근거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시민 불복종의 근거인 ‘다수의 정의관’이 ‘양심’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 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 정의하고자 한다.

[롤스, 『정의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개인의 양심’일 수는 없다고 본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공적 정의관’을 가리키는데, 이에 반해 개인의 양심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타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롤스에게 ‘개인의 양심’을 근거로 행해지는 저항 행위는 ‘양심적 거부’로, 시민 불복종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양심적인 거부는 반드시 정치적 원칙에 그 바탕을 두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법질서와 상반되는 종교적 원리나 혹은 다른 어떤 원리에 기초할 수도 있다. 시민 불복종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의 호소인 데 반해서 양심적인 거부는 다른 근거를 가질 수 있다.

[롤스, 『정의론』]

싱어는 개인의 양심이 ‘옳고 그름’의 여부를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은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① 싱어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일반적으로 시민 불복종이 최후의 정치적 수단

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시도 가능한 합법적 수단의 효용성이 없는 경우,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이 우선할 수 있다고 본다.

합법적 수단에 의한 변경의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적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성공적일 것 같은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강력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적법한 통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시도될 때까지는, 그러한 수단의 사용이 바라고 있는 변화를 일으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들을 연기할 이유밖에는 못된다.

[싱어, 『실천 윤리학』]

③ 롤스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는 일반적으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게 부정의한 법과 정책 등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 외에 시도할 만한 합법적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롤스도 소로와 마찬가지로 시민 불복종이 즉각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고 본다.

만일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다수자가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무감각함이 밝혀진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더 이상의 시도는 효과가 없는 것이며 처음부터 합법적인 정치적 반대의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 게다가 다수자들이 이미 터무니없이 부정의하고 공공연하게 적대적인 의도를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민 불복종조차도 오히려 너무 미약한 것이 된다.

[롤스, 『정의론』]

④ 싱어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단언하는 간단한 도덕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도덕 문제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싱어에게 ‘공리의 원칙’은 ‘간단한 도덕 규칙’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불복종의 표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조사해 보지 않고서 우리로 하여금 언제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고 언제 그렇지 않은지 단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간단한 도덕적 규칙은 없다.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싱어, 『실천 윤리학』]

⑤ 롤스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롤스에게 시민 불복종은 공적 정의관에 입각한 행위로, 사회 체제 자체에 대한 변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롤스는 사회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다면 ‘시민 불복종’이 아닌 ‘혁명’을 통해 부정의한 사회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 구조가 아주 부정의하다고 생각되거나 그 자체가 공표한 이상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변화나 혹은 혁명적인 변화를 위한 방도까지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롤스, 『정의론』]

혁명과 시민 불복종의 가시적인 차이점은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있다.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제도 등의 변화를 촉구하는 비폭력적인 행위임에 반해, 혁명은 부정의한 체제 자체에 대한 변혁을 촉구하는 폭력(이 수반될 수 있는)적인 행위이다.

◎ 오류 및 오타 문의 :

lunchethics01@gmail.com

◎ 인스타그램 : @lunchethics

◎ 총괄 : 김 지 호 / 10인 이상의 비영리단체

점심생윤™은 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꿈꿉니다.

점심생윤™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지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점심생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lunchethics. All rights reserved.